2026년 5월 06일 | Global Equity

AMD(AMD.US)

인텔보다 AMD를 좋아하는 이유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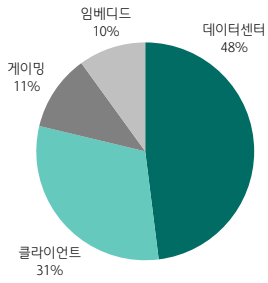
TP(컨센서스)	380.93 USD
CP(05.05)	355.26 USD

Key Data

국가	UNITED STATES
상장거래소	NASDAQ GS
산업 분류	Information Technology
주요 영업	Semiconductors & Semiconductor
홈페이지	www.amd.com
시가총액(십억USD)	579.2
시가총액(조원)	842.6
52주최고/최저(USD)	362.79/96.88
주요주주 지분율(%)	
Vanguard Group Inc/The	9.72
Blackrock Inc	9.06

주가상승률	1M	6M	12M
절대	(5.5)	8.2	64.5
상대	(14.1)	3.3	31.0

매출구성



Financial Data (백만 USD)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	25,785	34,639	47,880	70,749
영업이익	6,138	7,768	12,986	22,037
순이익	5,420	6,831	8,110	15,944
EPS(USD)	3.31	4.17	6.92	11.68
EPS(YOY, %)	24.9	26.0	65.9	68.8
ROE(%)	2.9	7.2	13.5	19.7
PER(배)	105.9	85.7	51.4	30.4
PBR(배)	3.5	5.6	8.3	7.3
배당률(%)	0.0	0.0	0.0	0.0

자료: Bloomberg,하나증권

Analyst
강재구 jaekoo.kang@hanafn.com
RA 이재은 jaeeunlee@hanafn.com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누가 서버 CPU 시장의 점유율을 확장하고 있을까?

AMD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지속한다. 시장참여자들의 서버 CPU에 대한 관심이 커진 덕분에 좋은 주가 흐름을 기대한다. GPU에 대한 강한 수요가 CPU까지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선순환이 나타나고 있다. 인텔은 실적 발표에서 공급제약을 가격 인상으로 만회했다고 발표했으나, AMD는 가격 효과보단 판매량 증가가 강했다고 언급했다. CEO는 중장기적으로 서버 CPU 시장 점유율 50% 이상 확보 가능성도 언급했다. 인텔의 서버 CPU 시장 점유율을 AMD가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MD와 인텔의 가장 큰 차이는 GPU다. 인텔도 가속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AI용 가속기가 CPU 시장 점유율 방어나 확대 등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AMD는 MI450, Helios, EPYC Venice 를 결합한 플랫폼 전략을 통해 GPU 수요를 CPU까지 연결하고 있다. 인텔도 수요는 강하지만 서버 CPU 시장 점유율 방어 또는 확대가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AMD를 더 선호한다. 과거 PC 시장에서 AMD가 인텔 점유율을 잠식하며 주가 재평가를 받았던 흐름이 서버 CPU 시장에서 재현될 가능성에 주목한다.

컨센서스 상회한 FY 1Q26 실적

AMD의 FY 1Q26 실적은 매출액 103억 달러(YoY +37.8%, QoQ -0.2%), 매출총이익 57억 달러(YoY +42.4%, QoQ -2.9%), 영업이익 25억 달러(YoY +42.8%, QoQ -11%), EPS 1.37 달러(YoY +42.5%, QoQ -10.1%)다. 각각 시장 컨센서스를 3.6%, 4.2%, 6%, 6.4% 상회했다. 매출 비중이 높아진 데이터센터 사업부가 호실적을 견인하고 있다.

영업비용은 39억 달러(YoY +34.5%, QoQ +3%)다. 연구개발비는 24억 달러(YoY +38.7%, QoQ +2.9%), 일반 판매관리비는 13억 달러(YoY +41.4%, QoQ +4.6%) 등이다. AI 사업 확장을 위한 투자가 계속되면서 연구 개발비가 늘고 있다.

시장 전망보다 양호한 FY 2Q26 가이던스

AMD의 FY 2Q26 가이던스는 매출액 112억 달러(YoY +45.7%, QoQ +9.2%), 매출총이익 63 억 달러(YoY +88.6%, QoQ +10.3%), 영업이익 30억 달러(YoY +231.3%, QoQ +17%), EPS 1.59 달러(YoY +231.1%, QoQ +15.8%) 등을 제시했다. 각각 시장 컨센서스를 6.2%, 7.6%, 11%, 9.6% 상회했다. 모든 사업부가 전년 대비 양호할 것으로 예상했다. 데이터센터는 강한 성장을 언급했는데 CEO는 2분기에 서버 CPU 매출이 전년 대비 70%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데이터센터 사업부: 서버 수요 견조하다

FY 1Q26 데이터센터 사업부 매출은 58억 달러(YoY +57.2%)다. 시장 컨센서스를 2.4% 상회했다. 5세대 제품(Turin)뿐만 아니라 4세대 EPYC Genoa 수요 모두 강했다. 클라우드와 기업 고객에 대한 판매가 각각 50%씩 성장했다고 CEO는 설명했다. 제품 성능 및 수요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는데, 지속적인 시장 점유율 상승이 가능하다고 했다. 중장기적으로 서버 CPU 시장 점유율 50% 이상 확보도 언급했다.

AMD는 서버 CPU 시장에 대한 긍정적 전망도 언급했다. 추론과 에이전틱 AI로 넘어갈수록 CPU의 수요는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GPU와 가속기의 헤드 노드 역할 외에도 데이터 이동, 할당, 병렬 실행 등에서 중요성은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AMD는 기존에 서버 CPU 시장이 향후 3~5년간 연평균 약 18%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이번에는 에이전틱 AI 수요를 반영해 2030년까지 연평균 35% 이상 성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30년 서버 CPU 총 가용시장(TAM)을 기존 600억 달러 수준에서 1,200억 달러 이상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데이터센터 사업부에 더 집중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서버용 CPU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게이밍과 클라이언트 수요가 둔화될 경우 확보된 공급 역량을 데이터센터 제품에 우선 배분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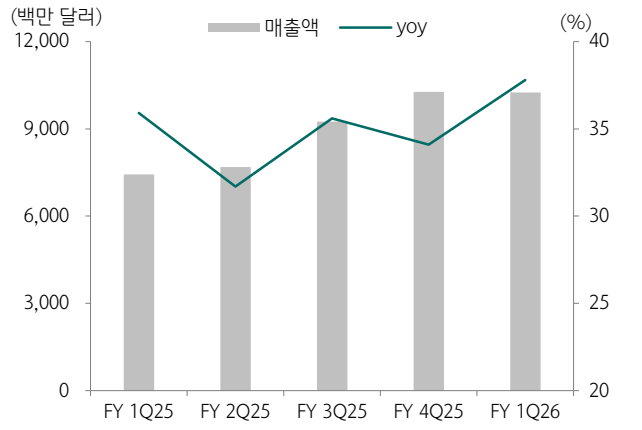
데이터센터 AI 사업은 중국향 매출 감소 영향으로 1분기 전분기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2분기에는 QoQ 두 자릿수 성장을 전망했다. MI450과 Helios는 하반기 출하가 시작되지만 2026년 실적 기여는 제한적일 전망이다. 더 중요한 부분은 2027년이다. OpenAI와 Meta를 포함한 대형 고객 수요가 구체화되고 있으며, 일부 고객의 수요 예측치는 기존 계획을 상회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 외 사업부: 클라이언트 & 게이밍, 임베디드

FY 1Q26 클라이언트 및 게이밍 사업부의 클라이언트 부문 매출은 29억 달러(YoY +25.8%, QoQ -6.8%), 게이밍은 7억 달러(YoY +11.3%, QoQ -14.6%)다. 둘 다 컨센서스를 6.1%, 12.3% 상회했다. 클라이언트 사업부의 PC용 프로세서 수요가 견조한 덕분이다. 2분기에도 클라이언트 부문의 주력 제품(Ryzen) 수요는 좋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메모리와 기타 부품 가격 상승 영향으로 하반기 출하는 낮아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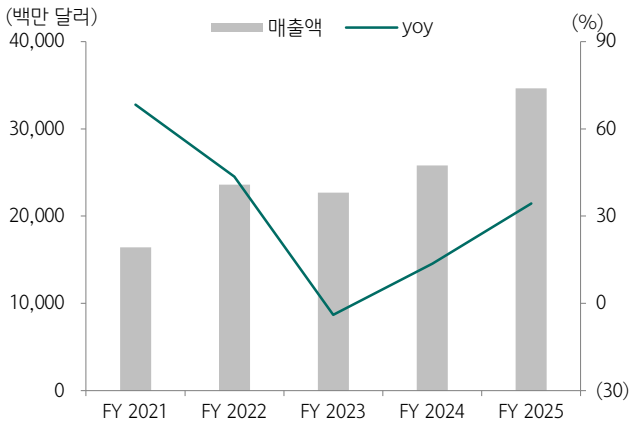
게이밍에선 콘솔용 제품(커스텀) 수요가 약했지만, 예상됐던 내용이다. 고객사의 신제품이 아직 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콘솔의 부진을 게이밍용 그래픽 제품(Radeon 9000)의 견조한 수요로 만회했다. 임베디드 사업부 매출은 9억 달러(YoY +6.1%, QoQ -8.1%)다. 컨센서스 수준인데, 아직 업황 회복 초기 국면이며 다음 분기에 두 자릿수 성장을 전망했다.

도표 1. 분기 매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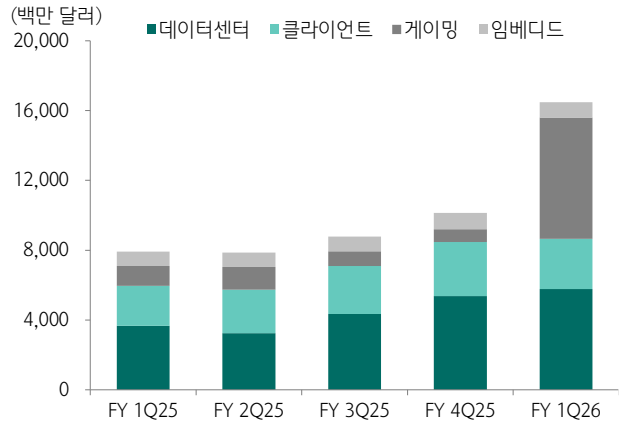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도표 2. 연간 매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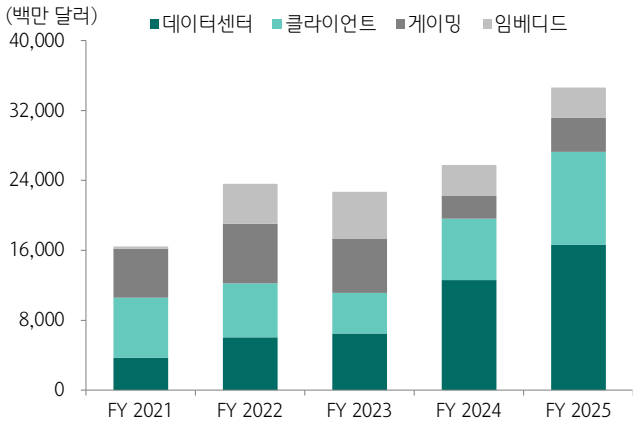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도표 3. 분기 사업부별 매출 추이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도표 4. 연간 사업부별 매출 추이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도표 5. 분기 실적 및 Bloomberg 컨센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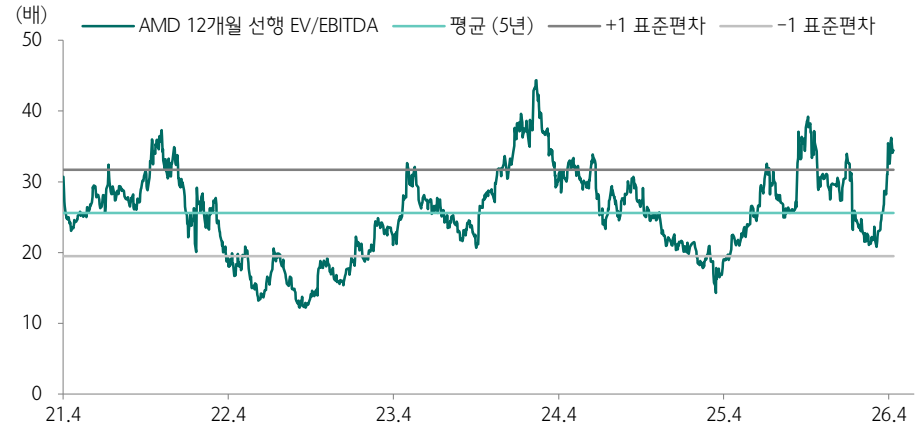
	FY 4Q24	FY 1Q25	FY 2Q25	FY 3Q25	FY 4Q25	FY 1Q26	FY 2Q26(E)
매출액	7,658	7,438	7,685	9,246	10,270	10,253	10,771
YoY	24.2	35.9	31.7	35.6	34.1	37.8	40.2
영업이익	2,026	1,779	897	2,238	2,854	2,540	2,772
YoY	43.5	57.0	-29.0	30.5	40.9	42.8	209.0
영업이익률	26.5	23.9	11.7	24.2	27.8	24.8	25.7
EBITDA	2,212	1,954	1,088	2,431	3,048	2,746	2,943
YoY	40.4	50.9	-23.9	28.8	37.8	40.5	170.5
순이익	1,777	1,566	781	1,965	2,519	2,265	2,463
YoY	42.3	54.6	-30.6	30.7	41.8	44.6	215.4
EPS	1.09	0.96	0.48	1.20	1.53	1.37	1.49
FCF	1,091	727	1,180	1,530	2,082	2,566	1,885
YoY	350.8	91.8	168.8	208.5	90.8	253.0	59.7
PER	108.0	67.2	77.9	77.8	84.6	69.9	43.8
PBR	3.5	2.9	3.9	4.3	5.6	5.1	8.9
EV/EBITDA	40.3	28.9	43.8	43.9	51.3	43.5	36.3
ROE	2.9	3.9	4.9	5.6	7.2	8.2	10.9

주: 백만 달러, %, %p, 달러, 배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도표 6. PER 추이(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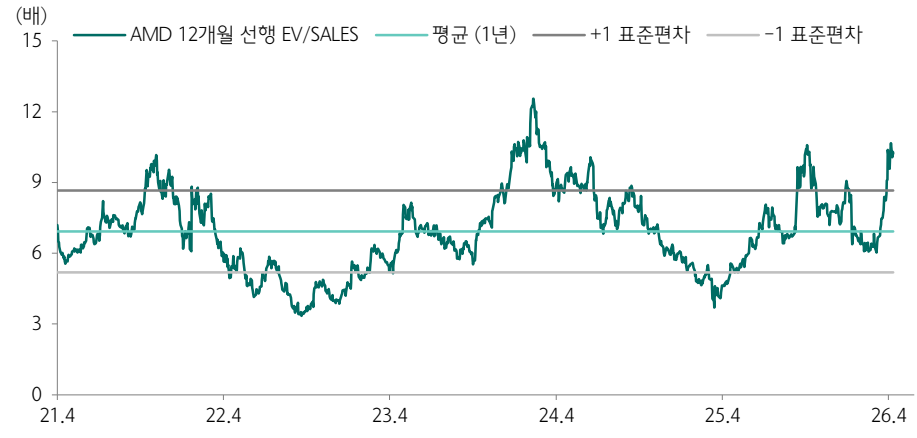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도표 7. EV/EBITDA 추이(5년)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도표 8. EV/Sales 추이(5년)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강재구)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2026년 5월 6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강재구)는 2026년 5월 6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